

주요개념 : 영아모,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김영혜** · 이화자** · 김순구***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성장발달은 출생이전의 생물학적, 유전적 잠재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출생 후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동의 출생과 더불어 가장 최초로 또 가까이에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더욱이 영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제공받는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은 성장발달에 더욱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Casey, et. al., 1993; 이화자 등, 1994; 홍창의, 1999).

애착(attachment)이란 모아 사이의 사랑의 끈 혹은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데 이는 엄마의 사랑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바람직한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모아상호간의 역할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아기 편에서 볼 때, 어머

니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애착 행동으로 울기, 미소하기, 매달리기, 호느끼기와 같은 활동이 있다. 그러나 아기 측에서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떠나려 할 때는 더욱 강렬하게 반응함으로써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노력이 추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측에서 볼 때 모아간의 충분한 애착형성에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로 수유하기, 안아주기, 옷 입히기, 만져주기, 목욕시키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등의 신체적 돌봄 활동 등을 말하며, 우선적으로 이들 양육행동에 대한 민감성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아의 욕구나 희망을 인지한 후에는 말로써 표현해 주고 이들 욕구를 기꺼이 해결해 주려는 양육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부모로서 양육과정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비로소 모아간에는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모아 애착 행동이란, 어머니가 다정하고, 세심하고,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발달되며 영아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보다 양육의 질이 애착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하영수, 1987; Wong, 1998; Slater & Muir, 1999; Cassidy & Shaver, 1999).

특히 어머니로서는 영아기에 기본신뢰감 및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건강증진연구부) 기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강원관광대학 간호과

안전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인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바로 영아초기 애착 지향적 양육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2000)에 의하면 대가족 비율이 1966년에는 25.8%이었던 데 비해 1995년에는 10.0%로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 초기의 자녀양육이 어머니 혼자 또는 대리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어머니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형성과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없었으며 다만 강윤형(2000)의 자폐증 아동을 위한 '모아애착증진을 위한 치료적 놀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 역할이나 모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권인수, 1992; 김미예, 1999; 김소라 외, 1993; 방경숙, 2000; 이영은, 1992; 이인혜, 2000; 이해경, 1995; 임숙빈, 2000; 임혜경, 1998; 조결자, 1993; 한경자, 1991)와 양육시 부담감에 관한 연구(성미혜, 2000; 구현영과 문영임, 1998, 2000; 한경자, 1997)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김경숙, 1993; 김수경, 1996; 김영이, 1994; 노명희, 1991, 오순환, 1991; 이자형, 1996; 이종일과 남정현, 1997; 진혜경 외, 1998; 허선자, 1992)이 다수 있었으나, 영아 모를 대상으로 한 애착 관련 양육행동의 연구는 전무하였고 영아모의 임신 의도와 양육태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심정하(1997)의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인간의 성장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의 모아애착형성에 필수적인 양육행동을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꼈으며 아울러 영아모의 애착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부산광역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모를 대상으로 영아초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영아모 및 영아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력을 확인한다.
- 2)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사정한다.
- 3)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자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권태명, 1996),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동안에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모아간의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는 양육행동과 애착형성시 나타나는 반응양상의 정도를 합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아동의 사회·정서지능이 인생초기부터 형성된다는 주장은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으며 신생아조차도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접촉 혹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종 자극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Brazelton, 1980). 이러한 접촉 또는 상호작용에 이용되는 행동들은 양육자의 견지에서 보면 영아의 만족 상태에 따라 목표 수정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영아의 행동견지에서 보면 돌봄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표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iegel, 1999). 즉 애착은 돌보아 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 동기 부여적이고 정서적이며 기억 과정의 방식에 의해 발전하는 뇌의 선천적 시스템으로서 영아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근접성을 심어주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지만 어머니에게는 영아의 신호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쨌든 안전한 애착에 의한 모아의 정서적 교류는 영아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대신 부정적인 상태를 줄여주고 달래줌으로써 안전한 기초에 대한 내적 감각을 느끼도록 해준다. 1995년 Mary Martin(Siegel, 1999에 재인용)에 의하면, 가장 이른 애착형성은 보통 7개월 정도에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유아들은 비록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애착형성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영아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후기 아동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Bowlby(1973; 1980; 1982)의 애착이론은 Ainsworth등(1978)의 '낮선 상황'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는데 Ainsworth(Slater and Muir, 1999에서 재인용함)의 초기 연구에 의하면, 65%의 아이들은 낮선 상황에서도 편안한 형태(autonomous-secure)를 취했으나 21%에서는 도피형(dismissing-avoidant) 나머지 14%는 몰두형(preoccupied-dependant) 혹은 미분화형(disorganized)의 애착형태를 취했다고 보고했었다.

영아는 모아 사이의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성숙한 두뇌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미완성 두뇌를 조직화 해나가는데 이때 애착행동이 필요하다. 애착은 동기적이고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진화된 뇌의 시스템이며 주로 자신을 돌봐주는 인물에 대하여 기억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한 애착의 정서적 교류는 어머니가 아이의 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가능해지고 이 신호는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확대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iegel, 1999). Main(1995)에 의하면, 모아 상호 조건이 적절하게 맞을 경우(mental state resonance), 생후 7개월이면 애착이 형성되며 거의 모든 유아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애착형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12개월 때에 측정된 영아의 안정/불안애착 유형은 이후의 유아발달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과 관계가 높았다는 종단적 연구들(Sroufe, 1983; Erickson, Sroufe & Egland, 1985; Fagot & Kavanagh, 1990)은 인간의 정서지능이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성인기 사회화과정의 한 단계이며 어머니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Mercer, 1985; Welles-Nystron & Chateau, 1987). 어머니에게서 기대되는 역할은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부드러운 태도, 따뜻함, 자녀에 대한 헌신, 자녀보호, 자녀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등의 애정결속과 목욕, 안아주기, 수유하기, 옷 입히기 등의 신체적 돌봄을 적절히 수행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어머니 역할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및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며,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만족감이 강화되어 더욱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아는 엄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 것이며 나중에 컸을 때 엄마를 떠나기가 쉬워진다(이영은, 1992; 최영, 2001).

어머니의 자녀 돌보는 활동 즉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산후 1~6개월 된 영아모 138명을 대상으로 심정하(1997)가 연구한 결과 임신결정의 주체가 아내와 남편이고 결혼 후 임신 전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 임신의도가 강하고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형(1996)은 초산모들이 신생아 돌보기 활동 중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

상태 파악하기 등을 어려워한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영아모가 기본적인 아기 돌보기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모아상호작용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청각장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경(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어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종일과 남정현(1997)은 부모의 양육행동 증가정분화가 가족의 기능불능상태를 초래하여 자녀의 정신분열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Benasich와 Brooks-Gunn(1996)은 12개월의 양육환경이 36개월의 IQ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분석하여 부모의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명희(1991)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어머니 456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서 아동의 성취동기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측정된 모아 상호작용 중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애정이 없는 양육태도는 유치원 생활 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 있으며(McFadyen-Ketchum, et al., 1996), 애정이 적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로 하여금 심한 자책과 의존, 주의력과 자제력 부족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한다(김경숙, 1993).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명이, 1994; 오순환, 1991),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1998).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인생초기

에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영아기 초기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영아애착 지향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영아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파악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요인들이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기간은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1일까지 2년에 걸쳐 부산시 간호사회 주최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선에 참가한 영아모 중 연구목적에 동의해 준 제5회(1999년 7월 20일)와 제6회(2000년 5월 19일)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모 20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15개 보건소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영아모에게 작성하게 한 후 부산시간호사회에서 접수하고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인 애착양육행동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애착이론(Cassidy and

Shaver, 1999)을 근거로 애착양육행동에 대한 구성개념을 정의하였다.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어머니가 영아를 돌볼 때 애착형성을 도와주는 양육활동과 애착형성시 나타나는 결과평가 즉 애착반응양상을 합쳐서 애착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한 후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와의 애착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양육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생활하는 중 아기와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애착양육행동 측정문항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언어자극 2문항, 감각 및 운동자극 2문항, 모아간 수면궁합 2문항, 친부모 및 시부모와의 관계 촉진 2문항, 양육경험 전달기술 2문항, 정신적 여유 2문항, 좋은 엄마 구별문항 2개, 부모역할 적성인지 2문항, 가족 소속감 1문항, 외모 닮기 문항 2개, 아기가 아플 때의 반응 1문항을 합쳐서 총 20문항을 제작한 후 신생아간호 전문가와 아동간호전문가 집단의 내용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 확인하였다.

둘째, 모유수유를 실천한 어머니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가가 낮거나 응답결과에서 분산도가 낮은 3개의 문항(외모 닮기와 아기가 아플 때의 반응양상)을 제외시켰으며 그 결과 애착양육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0$ 이었다.

양육행동 및 애착반응 결과평가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문항 13개와 부정적인 문항 4개의 총 17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매우 그렇다'를 4점, '대체로 그렇다'를 3점, '잘 모르겠다'를 2점,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평가하여(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합산했으며 최저 17점에서 최고 68점의 점수범위로서 높을수록 영아모가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앞으로 모아관계가 순조로울 뿐 아니라 유아기 이후의 사회 심리적 성장 발달이 좋

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한 후 SPSSWIN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는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양육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중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영아모의 평균 연령은 29.5세였고 26~29세의 영아모가 60.3%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출산이 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출산모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이 29.1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대상 영아모의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0.4세나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모이며 이들 자녀의 평균 연령이 6.2개월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통계청, 2000). 그리고 직업이 없는 영아모(95.6%)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영아모 보다 훨씬 많았으며 출산 시 자연 분만을 한 대상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57.8%). 출산 후 처음 아기를 접촉한 시기는 분만 후 1일 이내의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후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39.2%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아모가 퇴원하기 전에 신생아실에서 아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아기를 키우면

<표 1-1> 연구대상 영아모의 일반적 특성

(N=204)

특성	구분	실수	%
연령	25세 이하	20	9.8
	26~29세	123	60.3
	30~35세	50	24.5
	36세 이상	11	5.4
영아모 직업	유	9	4.4
	무	195	95.6
분만형태	자연분만	118	57.8
	제왕절개분만	86	42.2
분만 후 아기를 처음 접촉한 시기	1일 이내 신생아실에서	97	47.5
	1일 이후 신생아실에서	80	39.2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	16	7.8
	기타	11	5.4
외출시 아기 업는 방법	주로 뒤쪽(재래식)으로 업는다	80	39.2
	주로 앞쪽(서양식)으로 안는다	20	9.8
	두 가지를 혼용한다	103	50.5
	무응답	1	0.5
야간 수면시 깨우는 방법	처음부터 없어서 재운다	9	4.4
	처음부터 눕혀서 재운다	136	66.7
	처음에는 눕혀서 깨우다가 요즘에 와서 없어서 재운다	59	28.9
임신 당시 임신복 스타일	바지차림을 즐겨 입었다	40	19.6
	원피스차림을 즐겨 입었다	144	70.6
	임신복이 따로 없었다	20	9.8
임신시 입덧 정도	매우 심했다	32	15.7
	약간 했다	107	52.5
	잘 모르고 지냈다	35	17.2
	전혀 하지 않았다	30	14.7
부부간 애정표현에 대한 자가평가	예	195	95.6
	아니오	9	4.4

서 어머니가 영아를 업는 방법은 주로 뒤쪽(재래식)과 앞쪽(서양식)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50.5%), 아기를 깨우는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똑바로 눕혀서 깨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66.7%). 임신복으로는 원피스형을 즐겨 입었으며(70.6%), 입덧은 약간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52.5%), 평소 남편이 자신에게 애정표현을 잘 해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5.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2>와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7.4%로 여아보다

많았으며 영아의 평균연령은 6.2개월이었고, 그중 6개월이 35.8%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로서는 첫째가 가장 많았으며(62.3%), 영아의 체중은 평균 9.0kg이었는데 대부분의 영아가 6.31~9.73kg 범위 내의 체중이었고(78.4%), 신장은 평균 68.9cm로 정상 발육표준치인 61.6~73.4cm범위 내에 분포하였다(90.7%). 그밖에 두위의 평균은 43.4cm, 흉위의 평균은 45.9cm로서 1998년도 기준, 한국 소아 발육표준치의 정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일부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발달이 매우

<표 1-2>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

(N=204)

특성	구분	실수	%
성별	남	117	57.4
	여	87	42.6
연령	4개월	15	7.4
	5개월	70	34.3
	6개월	73	35.8
	7개월	46	22.5
출생순위	첫째	127	62.3
	둘째	67	32.8
	셋째	9	4.4
	넷째 이상	1	.5
이유식	한다	166	81.4
	안한다	38	18.6
체중(kg)	6.30 이하	1	.5
	6.31~9.73	160	78.4
	9.74 이상	43	21.1
신장(cm)	61.6~73.4	185	90.7
	73.5 이상	19	9.3
두위(cm)	39.8 이하	2	1.0
	39.9~45.6	187	91.7
	45.7 이상	15	7.4
흉위(cm)	39.7 이하	1	.5
	39.8~47.3	153	75.0
알레르기	47.4 이상	50	24.5
	유	5	2.5
가족병력	무	199	97.5
	유	13	6.4
과거병력	무	191	93.6
	감기와 설사 3회 이하	187	91.7
	감기와 설사 4~10회 이내	9	4.4
	감기와 설사 10회 이상	6	2.9
예방접종	일련	2	1.0
	유	200	98.0
BCG	무	4	2.0
	유	194	95.1
DPT	무	10	4.9
	유	192	94.1
소아마비	무	12	5.9
	유	194	95.1
간염	무	10	4.9
	유	194	95.1
배변횟수	하루 0.5~1회	156	76.5
	하루 2~3회	39	19.1
	하루 4회 이상	9	4.4
대변색	황색	197	96.6
	푸른색(녹색)	7	3.4
DDST	지연이 없음(정상)	204	100
	꼭 잘 잔다	190	93.1
수면습관	뒤굴면서 잔다	3	1.5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3	1.5
	옆에서 잔다	8	3.9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아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97.5%) 2.5%의 영아가 각종 이유식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으며 가족 병력이 없는 영아는 93.6%이었지만 6.4%에 해당하는 영아의 경우 다른 가족이 결핵, 당뇨병, 간염, 알레르기성 비염 및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력으로는 감기와 설사를 3회 이하로 경험한 경우가 91.7%로 영아들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그리고 90%이상의 영아가 BCG, DPT, 소아마비 및 간염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98.0%, 95.1%, 94.1% 및 95.1%)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도 발견되어 영아모에게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아가 배변을 하루에 0.5~1회 정도로 하고(76.5%), 대변 색은 거의 황색이었고(96.6%), DDST에서 모두 정상이었으며(100%), 수면습관으로는 대부분이 푹 잘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93.1%).

2. 연구대상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영아모의 애착 양육행동 점수는 가능 점수범위 중 최소 17점에서 최고 68점으로 평균점수는 60.9점이었으며, 전체항목 평점은 최대 4점 만점에 3.58±.63점으로 비교적 높은 애착 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아기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낀다”(3.98±.171점),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만지거나 쪽쪽이를 해준다”(3.92±.277점),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3.89±.311점), “아기가 울어서 젖을 주려할 때는 먼저 말로써 응대해준다”(3.88±.371점)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평균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애착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총 8개 항목으로서 아기궁합이 나랑 맞는 것 같다

(3.51±.684점), 나의 적성이 아기 양육에 적합하다(3.50±.712점), 아기를 키우면서 친정부모(3.41±.811점), 시부모(3.39±.849점), 아기가 나와 놀려고 하므로 내가 시달린다(3.39±.867점), 아기가 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 일을 한다(3.28±.878점),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본다(3.07±1.022점), 아기의 발달 특성을 기록하고 그에 대하여 남편과 대화한다(2.79±.982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2 참조).

〈표 2〉 연구대상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N=204)

내	용	평점±표준편차
아기가 울어서 젖을 주려 할 때 먼저 말로써 응대한다		3.88± .371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만지거나 쪽쪽이를 한다		3.92± .277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		3.89± .311
아기가 잠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 일을 한다		3.28± .878
아기와 궁합(바이오 리듬 혹은 생리적 리듬)이 맞는 것 같다		3.51± .684
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 기록하고 남편과 대화한다		2.79± .982
아기를 키우면서 친정부모와 친밀해짐을 느낀다		3.41± .811
아기를 키우면서 시부모와 친밀해짐을 느낀다		3.39± .849
아기가 가족 구성원 즉 식구라는 것을 느낀다		3.98± .171
나의 적성은 아기양육에 적합하다		3.50± .712
아기와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거나 노래한다		3.80± .410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 본다		3.07±1.022
아기와 함께 있으면 세상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		3.80± .562
아기가 나와 놀기를 원하여 내가 시달린다 #		3.39± .867
집안에서 아기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이다 #		3.69± .714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가 크게 울어대면 창피하다 #		3.76± .627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 매리거나 고함을 질러본 적이 있다 #		3.84± .471
총 평균	60.9/68.0점 (90.0/100.0점)	3.58± .631

<주> # 역 coding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어머니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정도가 일반적 특성 즉 영아모의 연령, 직업, 분만형태,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 임신 시 입덧 및 남편의 애정 표현과 영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순수 모유수유 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영아모의 연령을 25세 이하, 26~29세, 30~35세 및 36세 이상 군으로 분류하여 양육행동 점수와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3.497, p<0.05$). 즉 36세 이상의 어머니 군에서 애착 양육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6~29세, 25세 이하, 30~35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행동과 관련 없다는 심정하(1997)와 이자형(1996)의 보고와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평균 20.2세로 출산연령이 낮은 어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N=204)

특성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05
영아모 연령	25세 이하	20	60.85±4.56	3.497	.017
	26~29세	123	61.30±4.27		
	30~35세	50	59.40±4.49		
	36세 이상	11	63.27±3.04		
직업	유	9	63.22±3.80	1.635	.104
	무	195	60.79±4.39		
분만형태	자연분만	118	60.58±4.22	-1.226	.221
	제왕절개분만	86	61.34±4.59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	1일 이내 신생아실에서	97	60.53±4.41	1.129	.338
	1일 이후 신생아실에서	80	61.44±4.16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	16	59.81±6.16		
	기타	11	61.82±1.66		
임신시 입덧	매우 심했다	32	60.63±4.90	2.633	.050
	약간 했다	107	60.30±4.33		
	잘 모르고 지냈다	35	61.43±4.33		
	전혀 하지 않았다	30	62.70±3.62		
배우자의 애정 표현	사랑도 있고 표현도 잘 함	195	60.96±4.43	.939	.349
	사랑은 있으나 표현하지 못함	9	59.56±2.96		
영아 성별	남	117	60.99±4.27	.356	.722
	여	87	60.77±4.55		
영아 연령	4개월	15	62.13±4.79	.883	.451
	5개월	70	60.49±4.67		
	6개월	73	60.70±4.45		
	7개월	46	61.43±3.63		
출생순위	첫째	127	61.63±4.18	4.854	.003
	둘째	67	59.33±4.42		
	셋째	10	64.67±4.21		
모유수유 기간	1~3개월	9	63.22±3.96	1.537	.218
	4~6개월	164	60.69±4.53		
	7개월 이상	29	61.24±3.59		

머니는 부모역할에서 자녀수용도가 낮다는 East, Matthews & Felice(1994)의 보고와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자신감과 양육행동이 모성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Zahr(1993)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는데 이는 36세 이상의 영아모가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계획된 임신으로 아기를 위하여 출산한 경우이거나 영아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으로서 어머니 자체가 첫째 때보다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쏟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2000년 출생사망 통계표(2001)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의하면 한국 초산모의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는 데 비해 한국 여자 1인당 평균 출생아수는 오히려 1.42명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아 1인당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며 아울러 애착 양육행동의 점수가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본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새천년 즈문동이 계획출산은 2000년도에 들어 평균출산율을 올리는 데까지 기여하였으며 현재 1.47명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이 없는 영아모보다 직업이 있는 영아모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635, p=.104$). 이는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노병희(1991)의 연구와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양육참여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안재연(199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에 따라 영아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결과 제왕절개 영아모가 평균 61.34로 자연 분만한 영아모(평균 60.58)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26, p=.221$).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에 따라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1일 이내, 1일 이후 및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129, p=.338$). 그러나 임신시 입덧이 매우 심한 경우, 영아모의 양육행동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입덧을 전혀 하지 않은 영아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633, p=.050$). 배우자의 애정표현 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는 배우자가 사랑도 있고 표현도 잘한다고 응답한 어머니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어머니를 구분하여 t-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939, p=.349$).

다음으로, 어머니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를 영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356, p=.722$). 이는 오순환(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영아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애착 양육행동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883, p=.451$).

그러나 영아의 출생순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854, p<0.05$). 즉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군의 어머니가 평균 64.67점으로 가장 높은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나타내었으나 첫째(평균 61.63)와 둘째(평균 59.33)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출생순위가 둘째인 영아군의 어머니가 가장 낮은 양육행동 점수를 나타낸 것은 첫째 아기를 양육하면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순수하게 모유수유기간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상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1~3개월 간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가 평균 63.22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537, p=.218$).

이상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가 어머니의 직업, 분만형태, 아기를 처음 만져본 시기, 임신 시 입덧, 배우자의 애정표현, 영아의 성별과 연령 및 순수 모유수유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연령이 많거나 영아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령이 작으면서 첫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산모의 경우 혹은 임신 당시 입덧을 심하게 했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인생 초기 영아와의 애착형성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핵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대가족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오던 자녀양육방법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1980년대 이후부터 있어 왔지만 본 연구결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중에서 특히 영아 초기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간호중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모들의 영아 초기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녀와의 애착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또한 영아 또는 어머니의 일반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영아와의 애착형성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별대회 예선에 참가한 영아의 어머니 204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1999년 7월 14일부터 2000년 5월 19일까지였다.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4점 척도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측정도구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α)는 .70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별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점정은 t-검증과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모들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정도는 가능 점수범위(최소 17점에서 최고 68점) 중 평균 60.9 점이었으며 이를 전체 항목 평점 즉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0.0점이며 평균 평점으로는 $3.58 \pm .631$ 점으로서 매우 높은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점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연구대상이 부산광역시 모유수유아 선별대회에 참가한 생활태도가 적극적인 영아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하지만 평균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총 8개 항목으로서 아기궁합이 나랑 맞는 것 같다(3.51점), 나의 적성이 아기 양육에 적합하다(3.50점), 아기를 키우면서 친정부모(3.41점) 혹은 시부모(3.39점)와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아기가 나와 놀려고 하므로 내가 시달린다(3.39점), 아기가 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 일을 한다(3.28점),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본다(3.07점), 아기의 발달특성을 기록하고 그에 대하여 남편과 대화한다(2.79점)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후기 영아기 동안에 애착 양육행동을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양육행동의 차이는 $P < 0.05$ 의 수준에서 영아모 연령($F=3.497$), 입덧의 정도($F=2.653$) 및 영아의 출생순위($F=4.85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36세 이상이거나 임신 당시 입덧을 적게 했으며 영아의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영아모보다 훨씬 높은 애착 양육행동 점수를 보여 영아기의 애착형성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어머니의 연령, 임신 당시의 입덧 정도 및 영아의 출생 순위였다. 따라서 산모의 연령이 어리고 임신 당시 입덧을 많이 했다고 호소하는 초산모의 경우에는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출전한 영아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아모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산모의 연령, 입덧의 정도 및 출생순위와 같은 일반적 특성요인을 통제한 후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구현영, 문영임(1998). 산육초기 어머니의 스트레스, 불안, 및 신생아 지각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3), 616-624.

권인수(1992). 정삼아와 고위험 출산아의 모아 상호작용 양상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태명(1996).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김경숙(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라, 김승희, 김운영, 단현주, 오영주, 이문주(1993). 초산모의 산육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양상. 이화간호학회지, 26, 22-37.

김수경(1996). 첫각잠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이(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1998).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능력·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영임, 구현영(2000). 캅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불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6(3), 281-304.

방경숙(2000).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성미혜(2000). 신중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 대한간호학회지, 30(3), 670-681.

심정하(1997).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54-464.

안계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

- 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은(1992). 산욕초기 초산모의 간호목표달성 방법 함의가 어머니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1), 81-115.
- 이인혜(2000). 사회적 지지중재가 미숙아 어머니의 정서와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0(5), 1111-1120.
- 이자형(1996). 산욕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1.
- 이종일, 남정현(1997). 정신분열병 환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신경정신의학, 36(1), 55-71.
- 이화자, 김영혜, 이영은, 권수자, 김정순, 백경선, 안민순, 이은주, 이지원, 임현빈, 전화연(1994). 아동간호학 개론. 정담사.
- 임숙빈(2000).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5), 1133-1144.
- 조결자(1993).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아의 모-아 상호작용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혜경, 김경빈, 이종일(1998).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9(1), 67-81.
- 인구주택총조사실시(2000). 본부 발족을 계기로 본 우리나라 인구·주택의 변화모습. 통계청. 1999. 12.
- 2000년 출생사망통계표(2001). 모의 연령별 출산율. 통계청. 2001.9.27
- 한경자(1991).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1), 89-116.
- 한경자(1997).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0.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창의(1999). 소아과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Benasich, A.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5.
- Brazelton, TB, Koslowski, B, Main, M(1974). The Origin of Reciprocity: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 Rosenblum(Eds). NY.
- Casey, P.H., Bradlet, R.H. & Spiker, D.(1993). Pediatric Clinical Assessment of Mother-Child Interaction: Concurrent and Predictive Validity. Development and Behavioral Pediatrics, 14(5), 313-317.
- Cassidy, J. and Shaver, P.R.(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in New York.
- East, P.L., Matthews, K.L. & Felice, M.E. (1994). Qualities of adolescent mothers' parenting. Journal of Adolesc Health, 15(2), 163-168.
- Main, M.(1995). Attachment: Overview, with implications for clinical work. In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McFadyen-Ketchum, S.A., Bates, J.E., Dodge, K.A. & Pettit, G.S.(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

-
- 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ercer, R.I.(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3.
- Siegel, D.J.(1999). The Developing Mind: Toward a Neurobiology of Interpersonal Experience. The Guilford Press, in New York.
- Slater, A. and Muir, D.(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Blackwell Pub. Co.; 360-368.
- Welles-Nystrom, B.L. & Chateau, P.(1987). Maternal age and transition to motherhood: Prenatal and perinatal assessments. Acta Psychitrics Scand., 76, 719-725.
- Zahr, L.K(1993). The confidence of Latina mothers in the care of their low birth weight infants. Res Nurs Health, 16(5), 335-342.

ABSTRACT

key concept : infant's mother,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The Study of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mong the young infant's mothers

Kim, YH* · Lee, HZ** · Kim, 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mong the mothers with infants. The total number of 204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as subjects. They all were breast-feeding mothers who had their infants joining in the semi-final round of a healthy breast-feeding infant contes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4, 1999 to May 19, 2000.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0.0 ver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1. The mean ages of the subjects were 29.5 and 95.6 percents of them were no-job housewives. 57.8% of them were normal delivery. And the mean months of the infants were 6.2 and the male infants were 57.4%. The first born babies were 62.3%.
2. The mothers are affirmative enough with their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the total mean was $3.58 \pm .631$). In general, the mothers showed very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but the points that indicated "recording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 and discussing them with husband" were very low(score $2.79 \pm .982$).

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taking behaviors of the mothers according to their ages($F=3.497, p=.017$), the degree of morning sickness($F=2.633, p=.050$) and the birth order of their infants($F=4.854, p=.003$). The older mothers and mothers who experienced the less morning sickness showed the higher scores of the attachment-oriented behaviors. The mothers who experienced the more deliveries showed the higher scores of the attachment-oriented behaviors.

Accordingly, the above result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nursing intervention to encourage the attachment-oriented behaviors is essential to the younger, primipara mother.